
방통위 핀란드,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

- 핀란드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참관 -

◆ 기 간 : 2019. 9. 2. (월) ~ 9. 8. (일), 5박 7일

◆ 방문국가 : 핀란드(헬싱키), 독일(베를린)

2019. 9.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세부 활동	2
1. 교통통신부(MOTC) 방문 및 면담	2
2. Elisa(통신사업자) 방문 및 면담	10
3. Nokia 방문 및 면담	15
4. YLE(공영방송사) 방문 및 면담	23
5.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참관	29
III. 보도자료(1건)	50
IV. 언론보도 현황(2건)	52

1. 출장 목적

- 핀란드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2019 IFA(국제가전박람회)* 참관

*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 전문 박람회

2. 출장 국가 : 핀란드(헬싱키), 독일(베를린)

3. 출장 기간 : '19년 9월 2일(월) ~ 9월 8일(일), 5박 7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허 욱
2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장	최 선 경
3	운영지원과	상임위원 비서관	한 성 만
4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우 혜 진
5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박 정 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정훈 책임연구원, 김지은 통역사 동행

5. 주요 활동

- (핀란드) 방송통신 규제 기관과 주요 방송·통신사 방문을 통해 방송 시장 현황 파악 및 기관 업무 교류 등 정책 협력 방안 논의
-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2019 행사에 참관하여 최신 방송통신 장비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내기업 관계자 격려

6. 선물수령 관련

- 선물 수령 여부 : X

1. 교통통신부(MOTC) 방문 및 면담

□ 개요

- 일 시 : '19. 9. 3.(화) 10:00 ~ 11:30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교통통신부(MOTC) 회의실
※ 주소 : Eteläesplanadi 16, 00130 Helsinki
- 면담자 : Harri Pursiainen 사무차관, Ahokas Maija 네트워크 과장 등
- 의 제 : MOTC 기관 소개, 5G·공영방송 관련 정책, 허위조작정보·글로벌 OTT 서비스 관련 대응, 망 사용료 관련 입장 등

< 교통통신부(MOTC) 개요 >

- 명칭 : 교통통신부(MOTC,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 설립연도 : 1970년
- 조직 : 직원수 173명 (장관 : 산나 마린(Sanna Marin), 2019.6월~현재)
- 주요임무 : 핀란드의 교통, 통신분야의 정책, 규제, 관리 감독 등을 총괄하는 부처
 - 네트워크 :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급하여 사람과 상품과 데이터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
 - 서비스 : 교통·통신, 기상정보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련 경제정책 수립 등을 통해 기업 영업 활동에 장벽을 없애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발전 촉진
 - 데이터 : 데이터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가 안전하고 보안성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 확보
 - 거버넌스 : 교통통신부의 3개 산하 기관* 및 4개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 * 교통통신국(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ency : Traficom), 교통인프라국(Transport Infrastructure Agency), 기상청(Meteorological Institute)
- ** 교통관리핀란드(Traffic Management Finland Ltd), 공영방송사(YL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Cinia Ltd(네트워크,클라우드,SW회사), 노르딕 철도(Nordic Railways Ltd)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 (MOTC) 우리 기관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함. 한국은 IT/커뮤니케이션 선도국가로 한국측 대표단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함
- (KCC) 방문을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리며, MOTC가 소관하는 핀란드의 통신 및 방송 정책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음

【 MOTC 개관 】

- (KCC) 핀란드는 교통과 통신을 하나의 부처(MOTC)에서 담당하는 점이 흥미로운데 그 배경이 궁금함 (한국은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양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 (MOTC) MOTC 내에서 교통과 통신 부문은 분리하여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재화·서비스이든 간에 교통과 통신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원칙(principle)과 철학을 갖고 있어서 서로 시너지가 있기 때문임.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이 디지털화되면서 서비스로 전환되었음. 부서에서는 교통과 방송망 규제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
- (MOTC) 핀란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통신기술 도입(1G→5G)에서 선도국가였음. 1990년대부터 핀란드 정부는 정보화사회/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시장 중심(market orientation) 정책을 세웠으며, 규제의 중요한 목적은 으로 기업들이 좋은 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지난 20년 동안 핀란드 정부는 정보화사회/디지털경제 관련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 즉, 디지털 정책(digital policy)과 산업부문별 정책(sector policy)을 구분하지 않고 융합(mix)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 부문들이 디지털화(특히 생산성과 효율성 촉진 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임
- 핀란드 정부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관한 특정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음. 이미 사회가 정보화되어 이제는 '정보화 사회'가 아니라 '사회'이기 때문임

【 MOTC 주요 정책 】

- o (MOTC) 커뮤니케이션 주요 정책을 소개하자면, 첫째로 주파수 및 라이선스(허가 등) 규제로 현재까지는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규제를 탈피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왔음
- 두 번째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급(연결)하는 것으로 5G 서비스, 광케이블 서비스를 외딴지역까지 보급하고 공영방송(YLE) 등 매스 미디어를 모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음
- 세 번째는 사이버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오픈 데이터 마이 데이터 등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네 번째로, 요즘과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좋은 미디어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공영방송사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민간방송사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 정부차원에서 민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좋은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와주고자 함

- 마지막으로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계와 함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자 전세계·유럽 차원에서 노력 중이며, 교통 분야에서 자동화가 진전되고 로봇이 투입되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핀란드 새 정부 출범 3개월차로 정부가 계획하는 큰 그림은 아직 알 수 없음
- (KCC) 교통과 통신 등 여러 정책 분야를 통합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고, 스마트 시티가 발전·확산 됨에 따라 MOTC와 같은 통합적인 정책 운영의 경험과 지식이 향후 정책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됨

【 5G 관련 정책 】

- (KCC) 핀란드에서 5G 서비스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함
- (MOTC) 핀란드는 주파수 정책에서 진보적인 접근을 취해온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5G 분야에서도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임
교통·통신 뿐 아니라 미디어와 의료·보건 분야에 5G를 접목하고자 함
- (KCC) 한국에서도 5G 가입자가 250만명에 도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B2B 서비스 모델의 발전은 더딘 상황인데 핀란드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하며, 5G 분야에서 양국 간 향후 협력을 기대함
- (MOTC) 핀란드에서는 통신사들이 이제 막 5G를 시작하는 단계로 정확한 가입자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음. MOTC에서는 규제측면에서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 MOTC 산하기관인 TRAFICOM은 5G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항구·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핀란드는 특히 드론 분야 선도 국가인데, 이 분야에서 최근 핀란드-에스토니아 간 협력이 있었음

【 허위조작정보 관련 대응 】

- (KCC)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앞서 언급 하셨는데 이에 대해 동의함. 특히 선거철이 되면 허위조작정보의 영향이 커지고,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도 함. 핀란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함
- (MOTC) 굉장히 좋은 질문임. 이 문제에 대해 어제 2시간 동안 정부 내 안보 위원회(security committee)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현재는 이 현상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음
 - MOTC 입장에서는 우선 공영방송사인 YLE가 강하고(strong)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YLE는 의회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데, 현재 의회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었음
- (MOTC) ‘유럽 하이브리드 지식 센터’(헬싱키에 본부)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발생 기원·생산 주체 및 그 영향 등을 분석·연구하며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KCC) 한국의 상황은 러·중·일·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위치, 남북 분단 상황 및 잘 발달된 네트워크 인프라로 인하여 안보 이슈의 경우 특히 허위조작정보가 쉽게 발생·전파될 수 있는 환경·구조임
- (KCC) 구글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정보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여론이 극단화되는 민주주의의 위기도 우려됨
 - 한국 의회에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허위조작정보 판별 주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방안에 대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나,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신뢰 형성', '전통적 방송 뿐만 아니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의 공영방송 역할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병행 등을 고려하고 있음
- o (MOTC) 언급하신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함

【 공영방송 재원 및 정책 】

- o (KCC) 공영방송 YLE는 국민적 신뢰가 높다고 알고 있음. 수신료를 폐지하고 현재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은 없었는지 앞으로도 공영방송세(tax) 제도를 유지할 계획인지?
- o (MOTC) 새로운 제도·세금 도입 과정은 당연히 어려움이 없을 수 없음. 하지만 미디어 소비 방식 변화로 전통적으로 거실에서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실제로 국민 절반이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세(tax)를 도입하게 되었음
 - 처음에는 불평이 있었지만 국민적 시위는 없었고 특히 저소득층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세에 대해 수용하고 있음
 - 한편, 공영방송세 도입에 대해 민영방송사와 갈등은 있었지만 핀란드 정치인들은 항상 공영방송이 중요하다고 여겨 왔음
 - 최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공영방송의 사업 범위(scope)로, TV와 라디오에 한정할 것인지 인터넷·통신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인데, 유럽 집행위원회는 핀란드 의회를 상대로 YLE의 영역 확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올 가을 논의가 있을 예정임

- 선거철이 되면 민영방송사들이 YLE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데 기술발전에 따라 인터넷 시대에도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YLE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며, 현재까지 YLE 운영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o (KCC) 방송통신이 융합됨에 따라 공영방송도 사업 영역이나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함.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허위조작 정보가 확산될수록 공영방송이 종합적·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OTT 서비스 관련 정책 】

- o (KCC) 넷플릭스·아마존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OTT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EU 시청각지침은 국내물을 30%이상 편성하도록 쿼터 규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핀란드 정부의 OTT 관련 대응책이 궁금함
- o (MOTC)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의 대응지침을 따르고 있고, 유럽 자체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유럽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음
- 공정한 경쟁의 환경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소비자가 옳다고 생각하며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를 소비(선택)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에 맞추어 대응해야 함

【 망 사용료 관련 정책 】

- o (KCC) 글로벌 서비스들이 초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함. 한국에서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임. 핀란드 정부는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관련하여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행정소송 중)

- (MOTC) 망 중립성은 전세계적 이슈로 EU 집행위는 관련한 ‘통신 패키지(telecom package)’를 핀란드 의회에 제공함. 망사용료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핀란드 정부도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글로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

- (KCC)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도 담당하는데, MOTC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하고 있는, 핀란드에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독립기구가 있는지?
- (MOTC) MOTC는 주로 오픈 API, 데이터 이동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가 담당하고 있음

【 마무리 】

- (KCC) 오늘 방문이 방통위와 핀란드 관련 정부부처 간 첫 면담으로 앞으로도 양기관 간 정책과 지식을 교류하는 기회가 계속되기를 희망함

< 핀란드 교통통신부 MOTC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2. Elisa(통신사업자) 방문 및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9. 3.(화) 16:00 ~ 17:30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Elisa 회의실
※ 주소 : Ratavirtijankatu 5, 00520 Helsinki
- 면담자 : Nikula Vesa-Pekka 부사장, Markus Kinnunen 서비스 개선 담당 부사장
- 의 제 : Elisa의 5G 서비스 현황 및 미래 사업전략 등 소개,
글로벌 OTT 서비스 및 망 사용료 관련 입장 등 논의

< 엘리사(Elisa) 개요 >

○ 기업명 : 엘리사(Elisa Oyj)*

* '17년 기준 핀란드 통신시장 점유율 1위 기업 : Elisa社(35%), TeliaSonera社(34%), DNA社(20%)

○ 설립 : 1882년 1월 (본사: 핀란드, 헬싱키)

○ 사업 개요 : 이동통신, ICT,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 (소비자 고객부문) 개인 및 가정에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국내외 시장에 이동통신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통신 부문 5G 상용화에 투자

※ '17.12월 기준 핀란드-에스토니아의 30만여 가구 및 280만여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 (기업 고객부문)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국제 화상서비스, 고객관리 솔루션 등

※ 공공기관 포함 620만여개 기업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 전세계 90개국에 화상서비스 제공

* (브랜드) △ 엘리사(Elisa), △ 휴대전화 사업 및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엘리사 사우날라띠 (Elisa Saunalahti)', △ 영상통신 솔루션 관련 '엘리사 비데라(Elisa Videra)' 등

○ 기업가치/주가 : 76억 6,700만 EURO / '19.7.31 기준, 주당 42.48 EURO

○ 재무실적('18년) : (매출액) 18억 3,150만 EURO (순손실액) 3억 1,580만 EURO

○ 직원수 : 총 4,810명 *자회사는 총 20개사

○ R&D : 통신 산업의 자동화 및 산업용 IoT 전개가 목표

- ▲스마트공장 관리 ▲가상공장(Virtual Factory) ▲증강지능 등의 프로젝트에 관여

- '17년 진행한 프로젝트는 24개이며, R&D 투자액은 180만 유로(총매출의 0.1%)

□ 주요 논의 내용

【 프레젠테이션 : Elisa 5G 서비스 소개 】

- 핀란드 통신망 데이터 트래픽은 '12년 대비 '18년에 11배 증가하고, 트래픽의 약 70%는 동영상콘텐츠 소비가 차지하는 등,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고품질의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
- Elisa의 모바일서비스 요금제 특징은 '속도별'로 요금을 차등화*한 점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5G 요금제인 최고속도 1Gbps 모델은 월 49.9 euro, 600 Mbps 모델은 월 39.9 euro이며, 5G 단말기로는 화웨이, ZTE(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OnePlus(중국 스마트폰브랜드) 제품 등이 출시됨
- * 최고속도 1Mbps는 월 21.9 euro 100Mbps는 월 27.9 euro, 300Mbps는 월 31.9 euro
- 핀란드는 '19.4월에 5G서비스를 도입, 현재 이용자수는 약 1천명임. Elisa의 고객들은 점점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모바일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5G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최근 3년간('16년~'18년) 요금제 가입현황을 보면 100Mbps 이상의 빠른 속도의 상품군에 가입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 핀란드의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서비스에서 주문형 비디오 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9.8%씩 증가하고, Elisa의 자체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유료 고객도 연평균 41.4% 증가
- Elisa의 5G 서비스는 특히 e스포츠와 게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 최초 5G 모바일 게임 투어 및 이벤트 등을 개최하였음
- 10년 전부터 망 운영에 많은 자동화(automation)을 도입하여, 예방 조치*가 가능해졌고 네트워크 오류가 과거 7년 전보다 약 70% 감소함
 - * 운영 센터에는 직원이 없고 로봇 등이 대응하고 있음. 장애가 발생하면 미리 파악하고 자동적으로 해결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핀란드 및 Elisa 5G 서비스 현황 】

- (KCC) 5G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한국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올해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였음. 핀란드의 5G 현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Elisa) 한국의 5G 진행 상황에 관심이 많으며, 자사는 LGU+와 협력 중*으로 LGU+의 VR, K-pop, HD야구영상 등 5G서비스에 관심있음
 - 핀란드는 한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5G 선도 국가라고 생각하며, 5G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핀란드에서 인기가 많은 클라우드 기반 e스포츠, 게임 등의 latency(지연속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 * LGU+와 Elisa는 '19.2월 MWC에서 5G 서비스 및 스타트업 발굴과 네트워크 자동화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였고, '19.6월에 Elisa 벨리마티 마틸라 CEO등이 서울 LGU+ 사옥을 방문하여 5G서비스 및 네트워크 전략 등 협력방안 논의
- (Elisa) Elisa는 유럽에서 최초로 5G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핀란드 주요 4개 도시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20년에는 10-15개 도시에 추가할 계획(도시에만 서비스할 계획)임
 - 5G서비스 도입을 위해 Nokia, Huawei, Ericsson 등 망 네트워크 벤더와 협력하고 있음(삼성은 9월부터 진출 예정). 한편, 핀란드 다른 통신사들도 '20년쯤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5G 요금제 】

- (KCC) 핀란드의 5G 이동통신 요금제 특징에 대해 소개해주기 바람
- (Elisa) 한국 통신사는 5G 전용 콘텐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것 같음. Elisa는 4G나 5G 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는 같지만, '속도'별로 요금제를 차별화하는 모델임

- 모든 요금제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되, 최고 속도(max speed)를 제한하고 있음. 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면, 더 빠른 최고 속도가 제공됨.
- 이 요금제 모델은 Elisa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고객들은 저렴한 (느린 속도) 요금제를 떠나고, 점점 빠른 속도 요금제로 옮기고 있음. 이용자도 만족하며, 향후에도 이윤창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o (Elisa) 핀란드의 3개 통신사*가 모두 같은 요금제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제 설정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 핀란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 Elisa 40%, Telia 30%, DNA 28%
- o (KCC) 한국에서 5G 서비스는 소비자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B2B 모델의 발전은 더딘 편인데, 5G 시장에서 B2B 전망은?
- o (Elisa) 핀란드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 자사의 private network, 즉 5G 망의 일부이면서 자사의 private section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소비자형 5G와 기업용 5G,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o (KCC) 핀란드의 경우,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지? 뉴미디어와 ICT서비스 도입 현황은?
- o (Elisa)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속도(요금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서 시장이 포화 상태는 아님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포화 시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동영상서비스와 유료콘텐츠 부문이 계속 성장 중으로, 고객들이 Elisa의 동영상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어, 수익도 계속 증가

【 망중립성, 망이용료 관련 】

- (KCC) Elisa는 망중립성 이슈, 글로벌 OTT 서비스가 야기하는 트래픽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Elisa) 유럽에서 망중립성은 통신사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의 서비스보다 우선하여 더 빨리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함.
 - 글로벌 CP 등에 대한 망이용료 부담은 일부 유럽국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핀란드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속도 기반 요금제 차등) 때문에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음.

< Elisa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3. NOKIA 방문 및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9. 4.(수) 10:00 ~ 11:30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노키아 본사 회의실
- 면담자 : Sandro Tavares 마케팅 글로벌총괄디렉터 등
- 의 제 : 노키아 사업 소개, 한국과의 협력 현황, 5G 보안 등

< 노키아 (Nokia) 개요 >

- 기업명 : 노키아(Nokia Corp)
- 설립 : 1865년 5월 (본사: 핀란드, 에스푸*)
* 핀란드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수도 헬싱키의 서부에 위치한 위성도시
- 경영진 : ▲ 리스토 실라즈마(회장)(Risto Siilasmaa, 2012년~2019년 현재)
 - ▲Olivier Piou(부회장) ▲Rajeev Suri(CEO) ▲Bruce Brown, Louis R. Hughes, Elizabeth Nelson, Kari Stadigh 외 이사 총 8명
- 직원 수 : 총 10만 3,083 명
- 제조시설 : '18.12월 기준, 프랑스 2곳, 중국·브라질·핀란드·호주·미국·영국·인도에 각 1곳
- 사업 개요 : 네트워크 인프라 및 첨단기술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 고정형 네트워크(Fixed Networks), 모바일폰, WiFi 시스템, IP 라우팅, 가입자 데이터 관리, 네트워크 구현 및 현대화, IoT 및 5G 서비스 등을 제공
 - 네트워크 관리, 이동성, 미들웨어, 분석, 적용 서비스 등을 제공
 -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 기업, 정부, 공공안전, 금융, 의료, 물류, 제조업 등을 지원(①울트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Ultra Broadband Networks), ②글로벌 서비스(Global Services) ③IP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IP Networks and Applications), ④노키아 테크놀로지(Nokia Technologies) 등
- 기업 가치/주가 : 163억 1,500만 EURO / '19.8.1 기준 주당 4.92 EURO
- 재무실적('18년) : (매출액) 225억 6,300만 EURO (순손실액) 3억 4,000만 EURO
※ '18년 매출 비중 : 제품 판매 및 라이선싱(62.1%), 서비스(35.3%), 계약 수익(2.6%)
- R&D : 산하에 '노키아 벨 연구소(Nokia Bell Labs)', 연구소는 ▲기존 제품의 속도 및 효율성 강화 ▲ AI·클라우드·기계학습·5G·IoT 기반의 제품 개발에 역점
 - '18년 12월 기준 총 특허 수는 20,000개 ('18년 1,300여 종의 특허 신규 등록), 연간 R&D 투자액은 46억 2,000만 EURO이며, 이는 회사 총 매출의 20.5% 규모

□ 주요 면담 내용

【 인사말씀 】

- (노키아) 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6월에 한국 대통령이 핀란드를 방문하시고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노키아를 비롯한 핀란드의 스타트업 기업 등과 매칭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등 의미있는 행사들이 있었던 점 등 여러모로 '한국의 해'였던 것 같음.
- (KCC) 150년 가까운 오랜 역사를 가진 노키아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5G 가입자가 250만명을 넘어섰는데, 오늘 면담에서는 노키아의 5G 사업 전반 및 핸드폰 사업부문 매각 이후의 혁신전략 등에 대한 소개와 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함

【 프레젠테이션 : 노키아 5G 사업 소개 】

- 노키아의 핵심 사업 전략은 네트워크 망과 관련 비즈니스의 혁신적인 전환, 일부분이 아닌 전체 통신 생태계의 운영의 변화, 이해관계자들과의 개방적인 협업 추진, 안전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고품질 기술 기반 마련임
- 노키아 벨 연구소(Nokia Bell Labs)는 차세대 네트워크를 'the Future X'로 부르며, 네트워크와 관련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5G에 있어 노키아의 강점은 기지국에서 네트워크 관리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포트폴리오를 갖추었다는 점인데, 노키아는 주요 5G 시장인 미국, 한국,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로,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얻고 고객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노키아의 5G 서비스의 핵심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신업계에 도입한 점인데, 올해 여름 미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음.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현하면, 하나의 데이터센터가 다운되더라도, 자동화(automation)를 통해 다른 데이터 센터가 즉시 대신해서 망 서비스를 장애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o 5G 생태계는 4G와는 확실히 다른데, 진정한 5G 실현을 하기에는 기존 산업계의 기술 발전이 덜 이루어진 상황임. 4차 산업혁명 앱 (Industry 4.0 applications), 원격의료와 같은 서비스 사례(use case)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더이상 자체적으로 사내(In house)만으로 할 수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생태계에 들어와야 함
- o 현지 중소기업과 협업 시스템이 노키아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5G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 일반기업체, 생태계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들 및 관련 기술들을 연결·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노키아는 올해 6월 한국 중소기업기업인 케이엠더블유(KMW)와 5G 기술협력 및 공동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하여, KMW와 공동 개발한 대용량 다중입출력장치(매시브 마이모)가 한국 이통 3사의 5G망에도 공급되었음
- o 또한 노키아는 밀리미터파(mmWave) 대역을 활용하는 5G 서비스 솔루션 도구·장비 개발에 있어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재생 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탄소 제로 기지국(base station with zero carbon footprint)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음

- 노키아는 주요국들의 이동통신사들과 현재 48건의 5G 상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국(SKT, KT, LGU+), 미국(ATT, Tmobile 등) 등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상용화되었고, 중동(두바이, 사우디, 카타르)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5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
- 이외에도 노키아는 100곳 이상의 고객사와 5G 협력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70개 이상의 고객사와 기술 협력을 진행 중임

【 노키아 5G 경쟁력 관련 】

- (KCC) 5G 산업에서 핵심적인 영역은 어디인지, 특히 노키아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업 영역은 어떤 것인지 궁금함
- (노키아) 스플 셀,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대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 클라우드 네이티브(특정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징되어(containerized) 클라우드 내에서의 배포 및 확산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 역량 등이 중요할 것임.
- 노키아의 경쟁력은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들 수 있으며, 4G 등 기존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그간의 좋은 평판 및 4G→5G로 이어진 고객의 충성도에 감사하게 생각함

【 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

- (KCC) 5G B2B 모델에서 초지연 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가 중요한데 5G 네트워크에서 보안이 크게 중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궁금함
- (노키아) 5G 망과 망에 연결된 모든 요소(building block)마다 내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통해 자체 보안에 유의하고, 개별 제품·소프트웨어 모두 보안을 우선으로 설계되도록 신경쓰고 있음

- 과거에는 Core 부분의 보안에 더 신경을 썼던 반면, 주파수 이용 기술이 지능화되고 모바일 에지(edge) 컴퓨팅 됨에 따라 주파수 보안이 더 중요해졌으며, 노키아는 최근 FCC 위원장 아짓 파이와도 주파수 보안 강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폴란드와 미국은 최근 주요 기반시설의 보안 및 부품·제조기업들의 투명성 원칙(예를들어, 외국 정부가 망에 개입했는지 여부 검토, 네트워크의 윤리적 사용 등에 대한 원칙 등)에 관한 협정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 노키아는 150년 전통의 기업이자 파리·헬싱키·뉴욕 상장기업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이미 인정받아왔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음
- o (KCC) 5G 보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독립적인 외부조사기관, 인증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함
- o (노키아) 망의 보안을 평가하는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개별 기업들이 해킹 이벤트 등을 통해 네트워크 침투 등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노키아는 노키아랩의 보안 전문가들이 자체 해킹을 시도하는 등 보안을 검증하며 이를 분기별 보고서에서 발표하고 있음.
- 이제 5G는 교통, 병원, 에너지, 국방 등 주요 기반 시설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보안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 보안 표준화에 대한 시도는 진행 중인데 EU에서는 올해 여름에 5G 망의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알고 있음

【 노키아와 한국기업 간 협력 등 】

- (KCC) 노키아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나 한국 진출 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듣고 싶음
- (노키아) 4G 당시부터 한국의 3개 통신사와 긴밀한 협력을 해왔으며 만족하고 있음. 5G의 성능이 고객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작년부터 망을 최적화하고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배운 점이 많이 있었음.
 - 이제는 한국이 5G 보급 수준이나 성능 면에서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음. 물론 한국은 5G 신기술을 도입한 선도시장으로서 개척자로서 애로가 있기 마련이며, 혁신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함
- (KCC) 지난 6월 대통령 방문시 노키아와 SK텔레콤 간 5G R&D에 관한 MOU를 맺었는데, 협력의 내용과 향후 계획,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 관계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듣고 싶음
- (노키아) 한국기업과의 협력의 이점은 최고의 품질,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사가 노키아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촉진하며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에 장기적인 상호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
 - SKT와의 MOU가 그러한 예로서, 이는 노키아가 고객사와 5G 기술 고도화 및 6G 기술 연구에 대해 체결한 최초의 MOU임. 5G 표준화를 계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 6G 공동 연구방향도 제시될 거라고 봄.
 - 또한, SKT 고객들의 요구사항(디맨드)을 피드백 받음으로써 이를 기술 개발·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 등 SKT와의 협력은 노키아가 글로벌 통신 서비스·장비 제공사업자로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 글로벌 사업자 망 사용료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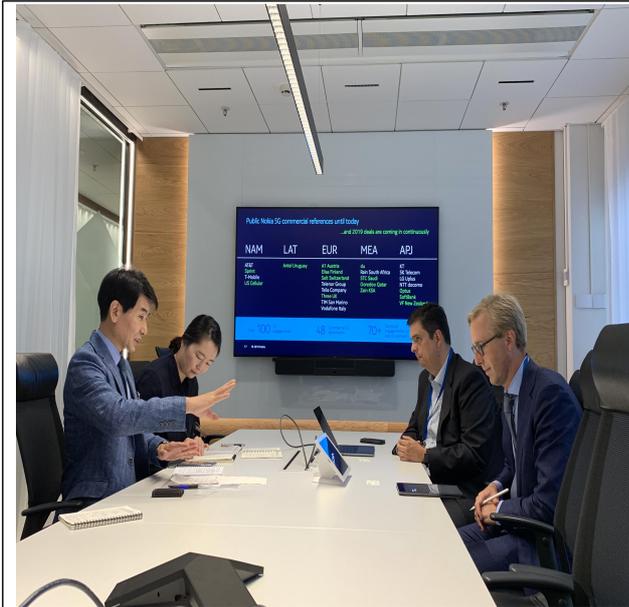
- (KCC) 넷플릭스나 구글 등 글로벌 CP가 유발하는 통신망 트래픽 증가로 망 설치·관리 비용 부담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이슈로 떠오름. 망 관리 전문기업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망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이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음
- (노키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첫 번째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음. 두 번째는 덜 개입적인 방법으로서 통신사와 CP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것임
 - 예를 들어 통신사가 자사 요금제에 넷플릭스를 포함시키고, 그 수익을 같이 나누어 갖는 모델임. 즉 통신사가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 쿼터에서 제외하는 등) 이러한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부상하는 트렌드로 보임
 - 노키아는 기술기업으로서 중립적 입장이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이 어느정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마무리 】

- (KCC) 바쁘신 가운데도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하여 5G 사업 현황 및 전략, 5G 보안, 한국기업과의 협력, 망 사용료 등 관련 현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 교환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노키아의 발전 및 한국기업들과의 협력 관계가 계속되기를 기원함

- (노키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핀란드와 한국 모두 통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올해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견고히 하는 모멘텀이 된 것 같음

< NOKIA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4. YLE(공영방송사) 방문 및 면담

□ 개 요

- 일 시 : '19. 9. 4.(수) 16:00 ~ 17:30
- 장 소 : 핀란드 헬싱키 YLE 회의실
※ 주소 : Iso paja, osoite Radiokatu 3, 00240 Helsinki
- 면담자 : Gunilla Ohls 인사·커뮤니케이션·전략 담당 국장 등
- 의 제 : 공영방송 재원 구조 개혁 방안, 공영방송 미래 사업 전략 등 논의

< 위엘에(YLE) 개요 >

- 정식 명칭 : 윌레이스라디오(Yleisradio, 약칭 : 위엘에)
 - 핀란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핀란드의 공영 방송(공기업)
 - 1950년에 결성된 '유럽방송연합(European Broadcasting Union)'의 23개 창립 방송사 중 하나
- 설립 : 1926년 'Suomen Yleisradio'라는 명칭으로 설립 (본사 : 헬싱키)
 - * 1958년 TV 정규 방송 개시 (채널명 'Suomen Televisio')
- 채널 : TV 채널(4개), 라디오 채널(13개), 지방 라디오 방송국(24개)
 - TV 채널 : Yle TV 1, Yle TV 2, Yle Teema & Fem, TV Finland
 - 라디오 채널 : YLE Radio 1, YLE X, YLE Sámi Radio, YLE Klassinen 외 다수
- 소유 : 핀란드 정부가 99.98%의 지분을 보유하며, 교통·통신부(MOTC) 산하 조직이되, 운영의 주체성 및 자율성을 보장받는 非부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 의회가 지명한 관리위원회의가 감독하며, 관리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 ▲과학·예술·문화·산업·경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 지식 및 두 개 언어 그룹을 대표하는 5-8명으로 구성
- 직원 수 : '18년 기준 총 3만 2,000여 명(정규직)
- 매출 : '18년 기준 총 4억 6,160만 유로
- 수익원 : '13년부터 개인 및 기업이 납부한 공영방송세 'Yle tax'로 자금 조달
 - 공영방송세 도입 전('12년까지) 핀란드인의 연간 TV 수신료는 252유로였으며, 이는 거실·침실 등의 공간 세트에 따른 기준
 - '13년부터 수신료는 공영방송세 'Yle Tax'로 대체, 개인, 기업으로부터 연 1회 징수
 - 연소득 1만 4,000 EURO 초과자는 1인당 연간 최대 163 EURO 징수하는 반면, 미성년자 및 1만 4,000 EURO 이하 저소득자는 면제
 - '17년 기준 Yle의 총 수입은 4억 7,500만 EURO, Yle tax 비중이 97.2 %를 차지

□ 주요 논의 내용

【 프레젠테이션 : YLE 소개 】

- YLE는 핀란드 공영방송사로, TV채널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8,000시간 이상 프로그래밍을 편성 중
- 2019년 주요 목표는 ①45세 이하 시청자의 YLE 웹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②모든 국민의 YLE 콘텐츠 및 서비스 참여 확대 등임
- YLE도 TV 시청시간 하락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비해 핀란드 15~44세의 TV 시청시간이 3분의 1로 감소*, 곧 50세 이상 절반이 스트리밍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 핀란드 연령대별 평균 TV 시청시간('19.1월) : (65세 이상) 1일 6시간, (45~64세) 1일 4시간, (25~44세) 1일 2시간, (10~24세) 1일 38분

- YLE의 디지털 비전은 ①국민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삶에 편리와 흥미를 더 하는 서비스 제공 ②사람 간 공평한 관계와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을 지원하는 플랫폼 ③신기술 및 스토리텔링 방법에 도전하는 국제 미디어 개척자임

①	②	③
-지식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고 이용자의 배경을 고려하여 경험을 제공한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통찰력과 경험으로 이어지는 참여를 창출한다. -YLE 서비스를 통해 나와 내 커뮤니티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다.	-새롭고 영감을 제공하는 미디어 활용법을 창출한다 - YLE 전문성과 기술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미디어산업의 진화를 촉진한다

- YLE Arena(온라인 플레이어)가 전반적인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Arena는 핀란드에서 넷플릭스보다 이용자가 많고, 핀란드에서 가장 가치있는 웹 브랜드, 다운로드가 가장 많은 앱 임
- 성공 요인은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한 점, 핀란드의 높은 인터넷 보급률, 무료서비스, EU 국가 내 이동성 보장, 열정적인 기업문화 등임

【 YLE 재원 모델 : 수신료 → 세금 】

- (KCC) YLE법에 따라 YLE는 TV·라디오에 상업광고를 할 수 없으며, 2013년 도입된 공영방송세(Yle Tax)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음. 수신료에서 세금으로 재원 모델이 변경된 배경이 궁금함
- (YLE) 2005년부터 수신료 징수율이 하락하고, 방송통신 융합 현상(인터넷 및 뉴 미디어서비스 부상)으로 재원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2011년 의회에서 YLE tax를 추천(recommend)함
- (KCC) YLE 세금은 1인당 얼마나 부담하며,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조세 저항 등이 있지 않았는지? 매년 비용 인상이 있는지?
- (YLE) 개인의 소득에 따라 0~163 euro 부과('17년 개인의 수입 및 자본 소득의 0.68% 수준)하며, 연소득 14,000 euro 이하 저소득층은 면제
 - 기업 등은 연간 과세소득이 50,000 euro를 초과하는 경우 140 euro의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세액은 연간 3,000 euro임
 - 수신료는 가구당 징수하고, TV set 소유 여부에 따라 지불했는데 개인당 세금을 부과하므로 국민들이 이전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YLE tax 도입 이후에도 YLE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음(80%)
 - YLE tax는 생활비 지표(1/3) 및 소득 지표(2/3)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나, YLE tax는 경제 침체기에 도입되어 작년까지 인상하지 못함
- (KCC) YLE tax의 도입을 추진한 주체는 누구였는지?
- (YLE) YLE는 fact만 의회에 제공했고, 의회에서 두 차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4~5년간 준비와 검토를 거침. 당시 의회는 YLE 예산 삭감이 아닌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감했음
 - 그러나 그 이후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져서 현재에 이러한 세금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음

< 핀란드 공영방송 재원조달 모델 >

- (변화 배경) 과거의 수신료 체계로는 더 이상 충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YLE 운영을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 필요
 - 수신료 체계를 대체할 모델을 찾는 과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핀란드의 환경에 맞게 설계된 Yle tax라는 혁신적 모델 모색
- (YLE법 보장내용) 정치 및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Yle 독립성 보장, Yle의 자금 조달과 관련해 모든 주요 변화는 의회 내 모든 정당의 합의에 따르기로 함
 - 비용 인상을 보상하기 위해 매년 예산 인상을 포함해 Yle에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 및 미디어 다양성 보장
-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 2013.1.1 도입, 자금 조달 수준(5억 유로)은 Yle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세금 적용 후 2017년 Yle은 4억6천1백8십만 euro 자금 확보

【 YLE에 대한 신뢰 및 독립성 】

- (KCC) YLE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어떠한지?
- (YLE) Yle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핀란드인 중 93%가 TV·라디오·웹에서 매주 Yle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76%는 매일 이용하며, 핀란드인의 95%는 Yle가 공공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함
- (KCC) 말씀하신 높은 국민적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Yle도 정부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지?
- (YLE) 상업방송들이 가끔 YLE 세금 보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YLE는 2015년부터 외주제작 의무화를 통해 독립 방송 제작사 등을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치적 독립성 관련, 비록 국가가 YLE를 소유하고 YLE 재원을 결정하지만, YLE 저널리즘과 정치는 확실히 분리(firewall)되어 있고, 저널리즘과 정치 간 독립성 유지를 위한 일정한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 YLE 미래(신규) 수익 모델 】

- (KCC) YLE tax 외에 별도로 수익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서비스들의 유료화 계획이 있는지?
- (YLE) 세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며, 유료화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크게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규모로 드라마 판권을 판매하고 있고 민간 미디어와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 radio.fi 라는 공동 웹사이트/앱을 통해 모든 핀란드 라디오를 전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데, 이는 YLE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
 - 그리고 앞으로 젊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YLE 콘텐츠를 얼마나 제공해도 되는지 고민중임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등이 고민되는 부분임)

【 YLE 경영 방식 】

- (KCC) YLE가 추진 중인 경영 효율화나 직원 교육·훈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YLE) 구조조정은 직원의 사기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임. 향후 직원 수를 늘리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정원은 계속 축소될 것 같음
 - YLE는 1년 반 전부터 Journalist Academy를 시작했고 직원들을 타 기업 연수나 외부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직원의 자기개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우리 회사 문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 동료·상사·부하직원 간 존중을 중시하며, 직원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제안 및 추진을 적극 장려함

< YLE 면담 >



< 면담 사진 >



< 기념 사진 >

5. 국제가전박람회(IFA 2019) 참관

1 국제가전박람회(IFA) 개요

- 기 간 : 2019년 9월 6일(금) ~ 11일(수), 6일간
- 장 소 : 독일 베를린 Messe Berlin·STATION-Berlin
- 전시회 특징
 - 라스베가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와 함께 세계 가전제품 동향을 짐작하게 하는 최대 규모의 가전 및 멀티미디어 박람회
 - 1월에 개최한 CES는 그 해의 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면, IFA는 그 해 9월경에 개최되어 시장에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전시규모 : 161,200sqm
- 주 최 : GFU(독일가전통신산업협회), Messe Berlin
- 참가업체 : 1,800여개 업체(2019년 기준)
- 참 관 객 : 25만여명(2019년 기준)
- 전시품목

오디오/하이파이(고해상도음원/서라운드	모바일	미래형 시제차
무인 비행기(Drone)	가전 제품용 부품 및 액세서리	웨어러블 / 스마트 휘트니스
전기 난방 및 공기 조절 설비	Home 엔터테인먼트 & VR	가정용 기기
스마트 홈/홈 네트워크/로보틱스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라이프 스타일 / 웰빙

□ 전시회 주요 구성

- IFA NEXT : 업계 관계자, 전문가,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미래 신기술·신제품·혁신 관련 쇼케이스 및 토론회

※ 스타트업들이 참가자들에게 자사 제품·솔루션을 5분간 피칭하는 'IFA NEXT Startup Days' 행사도 진행

- IFA 기조연설(Keynotes)* : 주요 IT·가전 업계 의사결정자들이 라이프스타일, 통신 & 장비, TV & 엔터테인먼트, 가전 등 관련 산업의 현재와 미래 발전상에 대한 비전을 발표

* 리차드 유(Richard Yu) 화웨이 컨슈머비즈니스 그룹 CEO 발표

- IFA Global Markets : 참가 업체들간의 거래와 계약이 진행되는 기업 전용 마켓으로 유럽 최대 기업간(B2B) 소싱 플랫폼을 지향

- IFA⁺ Summit : 전문가와 업계 리더들이 디지털의 미래(future digital)에 대해 2일간(9.8~9.9) 발표·토론하는 전문가 세미나

- Shift Automotive : 2일간(9.10~9.11) 모빌리티(mobility) 분야 기술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컨퍼런스

□ IFA 2019 핵심 의제

- IT·가전 업계와 관련 산업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혁신을 선도할 신기술과 혁신 기업이 선도할 미래 사회 변화상에 대해 전망

- 2019 IFA 5대 키워드 : 5G,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연결된 생활, 혁신파트너 국가 '일본'

○ 2019 IFA 기조연설 의제

- IT·가전 산업의 미래 혁신 돌파구(breakthrough)가 될 핵심 기술
- IT·가전 업계와 관련 산업 주요 플레이어의 사업 동향 공유
- 디지털화로 인한 미래 변화에 대한 조망

○ 2019 IFA⁺ Summit 의제

- 주제 : “패턴의 변화와 데이터리즘의 부상(SHIFTING PATTERNS - THE RISE OF DATAISM)”
 - 패턴1 : 사회(society) - “디지털 세대의 사회적 계약(A Social Contract for Digital Age)”
 - 패턴2 : 상호작용(interaction) - “스마트 연결, 블록체인, 새로운 자동화의 시대(Smart Connectivity, Blockchain and A New era of Autonomy)”

□ IFA 2019 : 총 941개 업체 참가 (‘19.7.29. 기준)

구분	전시 업체(ABC순)		
한국 업체 (42개社)	• 42MARU	• Bigs Spring Tree	• Circulus
	• CLAIR, Inc.	• Cool Ssha Co., Ltd.	• Coway Co., Ltd.
	• Cubroid	• Cuckoo Homesys Co. Ltd.	• Cuckoo Electronics Co. Ltd.
	• Edenlux	• ETRI	• Everybot Inc.
	• ExoAtlet	• INMOK Co., Ltd,	• J2C
	• Joydrone	• KDLAB Inc.	• KIRIA
	• KAIST	• Kuvings(NUC Electronics)	• LG Electronics
	• Lillycover Co., Ltd.	• Magpie Tech	• MAIN INFO
	• NIDS Co., Ltd.	• Olive & Dove Co., Ltd,	• OneSoftDigm
	• Opus One Inc.	• Printec Co. Ltd.	• Rastech
	• Robolink	• Samsung Electronics	• Sisoul Co., Ltd.
	• Smart Medical Device Ltd.	• Stratio	• Strig
	• Thinkware Corporation	• this is engineering Inc.	• Truen Co., Ltd.
	• Welt Corporation	• Zalman Tech Co., Ltd.	• Ze us Co.,Ltd.
주요 해외 업체 (30개社)	• Amazon Alexa	• ASUS Computer GmbH	• BELKIN Germany
	• Deutsche Telekom	• DJI	• Electrolux Appliances AB
	• Epson Deutschland GmbH	• Fitbit International Ltd.	• Fossil
	• Garmin Deutschland GmbH	• Haier Group	• Hsense International (HK) Co., Ltd,
	• Huawei	• Jabra	• Konka Group
	• Lenovo	• LOGITECH	• Netgear International Ltd.
	• Panasonic Marketing Europe GmbH	• Philips International B.V.	• Roku Inc.
	• SanDisk	• Segway-Ninebot	•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
	• SHARP HOME APPLIANCES	• Sony Europe BV	• Tefal
	• Toshiba Electronics Europe GmbH	• Xiaomi	• Yamaha Music Europe GmbH

2 주요 참관내용

□ 일시 / 장소 : '19. 9. 6.(금) 09:30~, Mess Berlin

□ 전시회 참관 일정

일시		상세일정	비고
오전	09:30 - 10:00	전시장 도착 및 출입증 교환	19홀
	10:00 - 10:30	LG전자	18홀
	10:40 - 11:30	Sony, Deutsche Telecom 등	20, 21홀
오후	14:00 - 14:20	ETRI, KAIST	26홀
	14:30 - 14:50	Amazon Alexa	
	15:00 - 15:10	Deutsche TV-Plattform	
	15:20 - 16:00	Panasonic, Huawei, KT 등	5.2, 6.2홀
	16:10 - 16:20	ARD*	2.2홀
	16:30 - 17:00	Samsung	City Cube B홀

□ 부스 주요 특징

- (LG전자)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 Better Life)을 주제로 LG 씽큐 홈(LG ThinQ Home), OLED TV, 시네빔 4K 프로젝터 등 전시
- (OLED 폭포) OLED 플렉서블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260장을 붙여 만든 초대형 폭포 구현
- 선명한 색상, 곡면 디자인 등 올레드만의 장점으로 파도, 대양, 우주의 성운 등 대자연의 웅장함을 표현,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적용해 서라운드 입체 음향 기술 구현

- (시그니처 올레드R) 세계 최초 64인치 대화면이 말려 들어가는 롤러블 TV로 공간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정제되고 미니멀한 조형적인 TV 시현
- 롤러블 기술로 제로뷰, 라인뷰, 풀뷰 등 3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었으며, TV에 내장된 4.2채널 100W 출력의 스피커 시현
- (8K TV) 세계 최대 크기인 88인치 올레드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시현
- 3300만개에 달하는 자발광 화소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섬세한 화질 구현
- 고화질·고음질 영상 콘텐츠 전송 규격 HDMI 2.1을 탑재하여 8K 영상을 초당 60프레임 재생하는 기술 구현
- 독자 개발한 화질 칩에 딥러닝 기술을 더한 '2세대 인공지능 알파9 8K'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적화된 화질과 사운드 구현

< LG전자 전시관 >



- (Sony)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컨셉으로 엑스페리아 스마트폰, 무선 헤드폰 시리즈, 브라비아 TV 시리즈, 카메라 등 시현
 - (엑스페리아 5) 엑스페리아 1의 핵심 기능이 추가된 Full HD OLED 디스플레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 시현
 - HDR(High Dynamic Range)을 지원하는 6.1형 21:9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콘텐츠(영화, 게임 등)를 제작 현장에서 만드는 비율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기능 구현
 - (무선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가벼운 실리콘 소재의 넥밴드형 이어폰 등 제품 시현
 - 개인의 활동(정지, 걸음걸이 등 움직임 속도)을 감지하여 가장 최적화된 모드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 시현
 - (360 RA) 라이브 콘서트에 와있는 것처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청취 기술 시현
 - 청취자의 정면, 측면, 귀 모양 등 촬영을 통해 청각적 특징을 분석하여 개인에 최적화된 음장 구현
 - (8K TV) 사운드-프롬-픽처-리얼리티(Sound from Picture Reality) 기능을 탑재하여 화면 시야각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고유 기술 시현
 - (카메라) AI 기반의 Eye-AF 방식으로 사물을 고화질 및 정확하게 포착하는 기술 구현

< SONY 전시관 >



- (도이치 텔레콤) Dabei Festival 행사를 개최하여 '5G가 바로 앞에(5G vorne dabei)' 라는 문구로 유럽에 도래한 5G를 홍보함
 - IFA 개막에 앞서 5일(현지시간) 베를린, 쾰른, 뮌헨, 본, 다름슈타트 등 5개 도시에서 5G 상용화를 발표함
 - 클라우드 게이밍, AR 캐릭터와의 댄스 체험장, VR 게임 등 5G 서비스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 해보고 5G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장 운영
 - 2~3년 뒤 80~90%의 5G 커버리지를 달성하여 전국적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도이치 텔레콤 전시관 >



- (ETRI) 연구원에서 추진중인 인공지능 연구성과를 해외에 공개하여 기술을 홍보하고 사업화 마케팅을 진행함
 - (스마트 팩토리 운영제어 시스템) 3D 프린터나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 기술로 개인 맞춤형 생산 지원을 위한 기술 공개
 - 모듈형 설계를 통해 제조 라인을 쉽게 변경이 가능 하고 실시간 공정 관리 및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운영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기술 구현
 - (AI 동작 분석 기술) 휴먼 동작을 분석하는 기술로 사용자 동작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기술 공개
 - 역동적이고 복잡한 동작도 비교·분석이 가능한 기술로 사용자 동작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 동작 기반 교육용 콘텐츠, 스포츠 자세 분석 및 교정, 의료 재활 클리닉 등에 이용될 수 있음
 - 홈 트레이너 등 국내 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갖고 사업화 준비 단계임
 - (인터넷 오브 미디어 기술) 인공지능을 통해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유해성, 불법성, 미디어 간 연관성 분석으로 신뢰 가능한 미디어인지 검증하는 기술 공개
 - 지능형 미디어 정보 검색 서비스, 유해 영상 차단 서비스 등에 활용이 가능하여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음

- (딥러닝 고속 처리 시스템 기술) 이미지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고속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든 딥러닝 특화형 분산 컴퓨팅 플랫폼 기술 공개
- 딥러닝 학습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하여 딥러닝 분산 학습에 최적화시켜 기존의 환경에서보다 더 빠른 딥러닝 성능 기술 공개

< ETRI 전시관 >



- (KAIST) K-글로벌 사업의 일환으로 카이스트 원천 기술을 이전 받은 성남시 기업 제품을 해외 기업에 홍보함
 -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사업화 가능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전시, 기업 홍보 등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홍보 지원
 - (NIDS Sensor) 환경 오염(초미세먼지, 미세먼지, co2배출 등) 감지 센서 개발 회사로 에너지 관리용 IoT smart 센서를 연구 개발함
 - 카이스트로 부터 센서 원천 기술을 이전 받아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차량용 공조 시스템(HAVC) 등 제품을 개발함
 - 최근 다이슨에 수출하며 사업이 확장되는 등 성장하고 있음

< KAIST 전시관 >



- (도이치 TV 플랫폼) 독일의 민간·공영 방송사, 독일의 대기업, 위성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 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소, 연방부처, 정부기관 등이 회원인 비영리 협회
 - 시청각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솔루션을 논의하며,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방송과 브로드밴드를 융합하는 Hbb TV* 기술 표준을 독일 방송사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표준에 대한 장점을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음
- * Hbb TV(Hybrid Broadcast Broadband TV) : 인터넷이 연결된 TV, 셋탑박스, N스크린 기기를 통해 방송과 브로드밴드망 콘텐츠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표준
- 재원은 회원사들로부터 펀딩(기업의 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등을 두고 있음)을 받고 있고, 모인 회원비로 IFA에 참관하거나 브로셔 등 안내문서 발간 및 교육적인 홍보물을 발행하고 있음

< 도이치 TV 플랫폼 전시관 >



○ (아마존 알렉사)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스마트홈 플랫폼 서비스 시현

- 아마존 알렉사를 이용해 각종 전자기기나 난방, 조명 등을 작동시키는 등 가정 내 기기를 제어하여 하는 스마트홈 시현

- 자동차와 연계하여 집안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미리 켜둘 수 있고, 뉴스 알림 기능, 음악 재생, 알람 설정, 날씨정보 제공, 교통정보 제공 등 확장된 활용 범위 시현

< 아마존 알렉사 전시관 >



○ (로봇산업진흥원) 국내 기술을 유럽 지역에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 마련

- (제우스) 1970년에 설립된 산업용 로봇 제작업체로 작동 조작성이 간단한 산업용 로봇 '제로(ZERO)' 시현

- 17kg로 가볍고, 6개 축으로 구성된 다관절 로봇으로 공간 구성에 효율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단순 반복적 움직임에 적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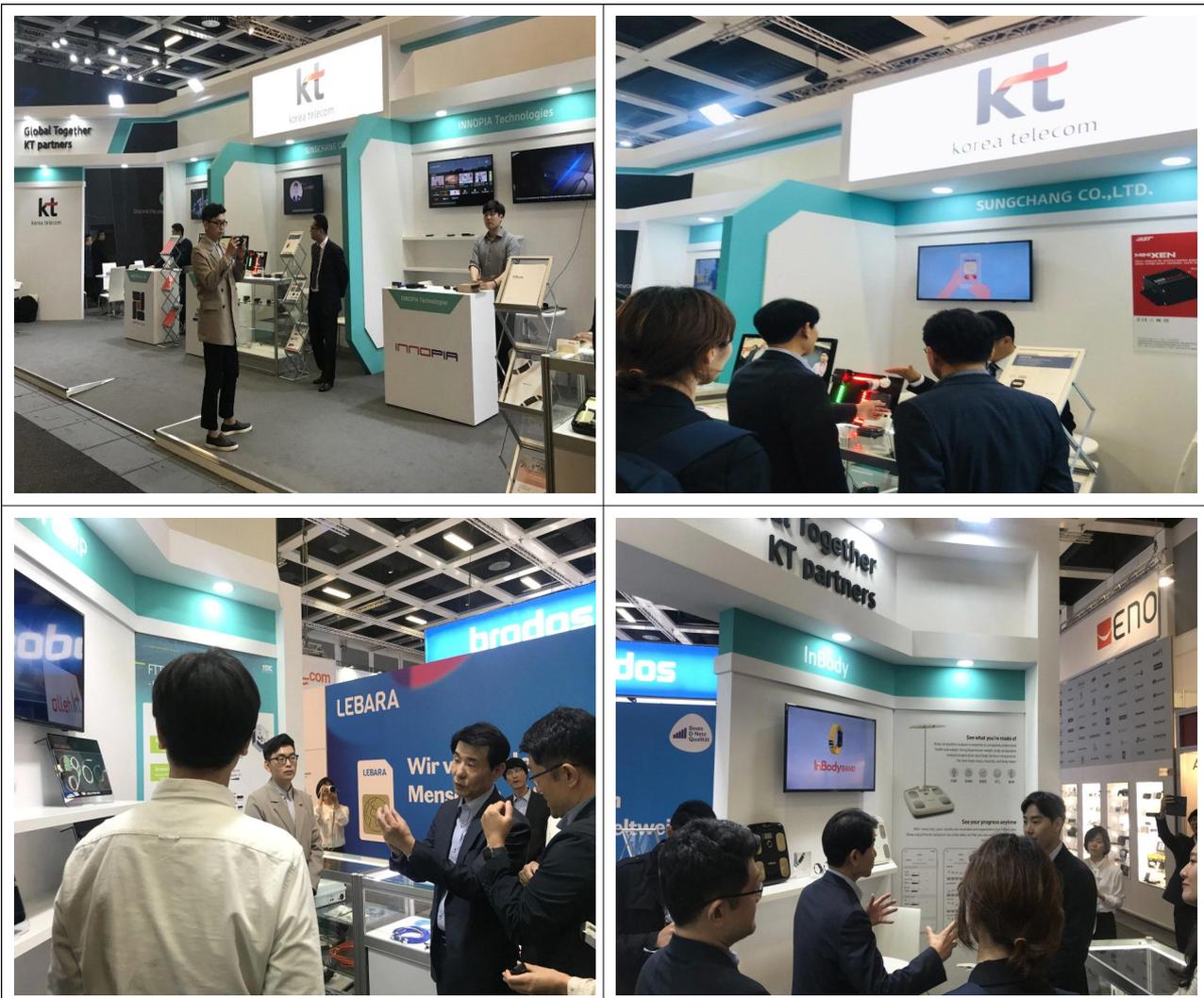
< 로봇산업진흥원 전시관 >



- (KT 파트너스) 5개 협력사의 기술과 솔루션을 전시하고,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부스 마련
- (고려오트론) 광분배기, 광커넥터 등 광 통신망 구축의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업체
- 광 통신망 시공 시 현장에서 별도의 접속장치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현장 조립형 광커넥터와 광분배기 전시
- (이노피아테크) IPTV용 셋톱박스 제작 전문 업체로 손바닥보다 작은 초소형 크기의 IPTV용 UHD 셋톱박스를 개발하는 업체
- (가보테크)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가로등 전문 업체로 실외 조명 양방향 제어기기와 가로등 양방향 무선점멸기 등 제품 시현
- 중앙 관제시스템에서 사물인터넷 모뎀을 통해 직접 제어하는 스마트 가로등 기술 시현

- (인바디) 체성분 검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 체성분 분석과 만보기, 수면 분석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신제품과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시현
- (성창) KT와 성과 공유제 협력 방식으로 개발한 초소형 직류 무정전 전원 장치 전시
- 기존 장치 대비 저렴한 제품과 초소형 사이즈의 보안, 방재 등 다양한 무정전 전원 장치 시현

< KT 파트너스 전시관 >



- (화웨이) 5G 모바일 기기, 5G 통합칩, 스마트 워치, 무선 이어폰 등의 제품을 시현하였으며, ‘혁신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함
 - (5G 모바일) 5G 기술로 인해 초당 1.6기가의 속도로 영화를 5초 안에 다운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술 시현
 - (5G 통합칩) 7나노미터 극자외선(EUV) 공정을 통해 생산된 5G 스마트폰용 시스템 온 칩(SoC : System on Chip*)인 ‘기린 990’ 시현
 - * SoC(System on Chip) : 두뇌 역할을 하는 AP와 모뎀, 메모리 등을 하나로 통합해 만든 기술집약형 반도체
 - (프리버즈) 화웨이의 최신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기술을 집약한 인공지능(AI) 칩셋이 탑재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시현
 - 본 보이스 프린트(Bone Voiceprint Recognition) 바이오 인식 기술을 사용해 목소리 파장으로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제품 시현
 - 14mm의 고감도 다이내믹 센서를 적용한 베이스 튜브로 사운드 효과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통해 외부 소리를 차단하는 제품 시현
 - (스마트 안경) 한국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업한 스마트 아이웨어 시리즈로 2개의 선글라스 모델과 3개의 일반 광학 안경 모델을 시현
 -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 듀얼 클릭 컨트롤 등 간단한 조작을 통해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음성인식 서비스가 가능함
 - IP67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이 있으며, 안경 케이스를 통해 무선 충전이 가능함

- (하이링크) 사물인터넷(IoT)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화웨이 제품은 물론 타사 제품도 연결이 가능한 개방형 기술 구현
- 어플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관리·제어하는 방식으로 화웨이는 하이링크 소프트웨어를 통해 플랫폼을 제공함
- 다양한 파트의 500여개 기업, 2,000여개의 제품군의 다양한 디바이스로 중국내에서 상용화 하고 있음
- 화웨이는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제조업체, 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화웨이 전시관 >



- (ARD) 독일 텔레비전 방송사이자 독일 제1공영방송으로 젊은층 시청자 유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시현
 - AR 기술을 활용한 뉴스 클립 서비스를 2025년 상용화 할 예정
 - AR 내 새로운 사업으로 AR 기술을 통해 뉴스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는 서비스 구현

< ARD 전시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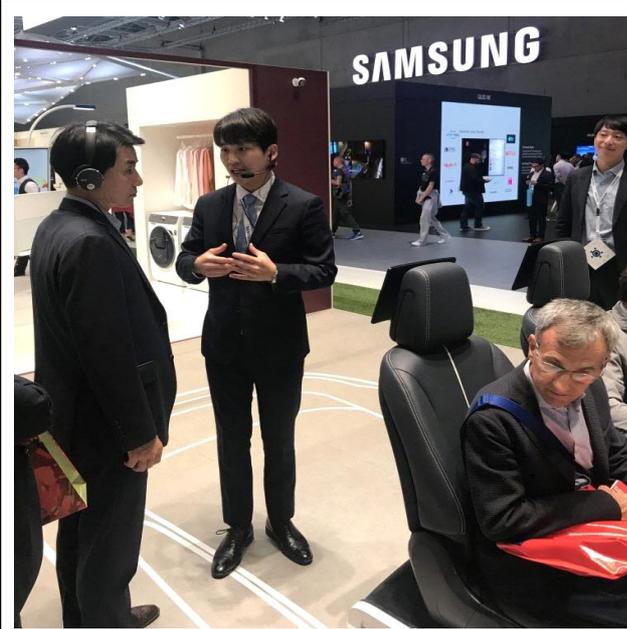


- (삼성) 삼성 타운을 조성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스마트홈, QLED 8K TV, 최신 5G 갤럭시 스마트폰 등 AI·IoT·5G 등 첨단 기술 구현
- (커넥티드 리빙존) 삼성 독자적인 IoT 플랫폼인 스마트싱스 (SmartThings)와의 연동을 통해 자사 프리미엄 가전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현
- 차량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집안의 공기질, 냉난방, 조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집 안에서 외출 전 연료량 등 차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디지털콕핏을 이용한 서비스 시현
- (갤럭시 노트 10) 더욱 얇아진 베젤의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와 한층 강화된 S펜이 장착된 5G 스마트폰 시현
- S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과 속도를 감지할 수 있어 다양한 몸짓으로 여러 기능을 제어하는 기술 시현
- (갤럭시 폴드)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의 제품으로 펼쳤을 때 7.3인치, 접었을 때 4.6인치인 디스플레이의 폴더블폰 시현
- 펼쳤을 때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을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태스킹 경험을 제공하며, 접었을 때는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하여 태블릿과 스마트폰 두개의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 시현
- 이전의 문제점 이었던 화면 보호막은 베젤 아래로 넣어 사용자가 임의로 떼어낼 수 없게 보완하였음

-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 커버 카메라, 전면 듀얼 카메라 까지 총 6개를 장착하였고, 해외시장은 LTE, 국내에서는 5G 전용 모델로 출시할 예정임
 - (갤럭시북S)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윈도우 10 홈OS가 탑재되어 모바일과 PC의 장점을 결합하여 사용 가능한 휴대용 노트북 시현
 - (더 세리프 TV)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로낭&에르완 부홀렉 형제가 만든 TV로 알파벳 대문자 'T'를 형상화한 제품 시현
 - NFC 기능을 통해 모바일에 있는 음악을 세리프TV로 재생 할 수 있고, Q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초고화질의 화면 구현
 - (더 프레임) '아트모드' 기능을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에는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화면에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시현
 - 벽과 밀착된 액자형 디자인으로 주변 조도 등 환경에 따라 색감을 조정해 주고 캔버스 질감을 살려주는 기능 등 구현
 - (QLED 8K TV) 다양한 풀 라인업(55, 65, 75, 82, 85, 98인치 등)을 구축하였고, AI 업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어떤 화질로 촬영을 해도 8K 급으로 영상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고화질 변환* 기능 시현
-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스트리밍 콘텐츠 또한 8K 급으로 변환 가능
- (더 월) 정사각형으로 된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크기나 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기호대로 맞춤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시현

- 초소형 자발광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여 정확한 색상 표현으로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최적의 화질을 보여주는 기술 시현

< 삼성전자 전시관 >



Ⅲ. 보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년 9월 2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 2019.9.2.(월)

문의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강필구 과 장(☎2110-1331)
박정은 주무관(☎2110-1332, vakje@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 핀란드와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 및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참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상임위원은 9월 2일(월) ~ 7일(토)까지 핀란드와 독일을 방문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현안과 양국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핀란드의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교통통신부(MOTC :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를 방문하여 방송·통신 서비스,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핀란드 최대 통신사업자 Elisa, 공영 방송국 YLE 등을 방문하여 5G, 뉴미디어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핀란드의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인 노키아(NOKIA) 방문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신규 산업 대응 전략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허욱 위원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제가전박람회 (IFA)*를 참관하여 최신 정보통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 전시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끝.

* 국제가전박람회(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 독일 베를린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및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 전문 박람회



[IFA2019]허욱 방통위원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공감"

발행일 : 2019.09.08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오른쪽 두번째)이 KT 파트너스관에서 이노피아테크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 방송통신위원회도 관계부처에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IFA 2019에 참관해 KT 동반성장 부스 등을 돌아본 뒤 국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이어서 직접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 각 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노피아 등을 둘러본 허 위원은 명함 크기 단말을 달기만 하면 무선으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와우!"라고 감탄사를 외치기도 했다.

허 위원은 "KT가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전시회에 공동 참가함으로써 초기 사업파트너를 잘 연결해준 것 같다"면서 "올해는 5개사와 함께 참여했는데 향후 10개, 20개로 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유, 벤처 지원, 생태계 협업 등 정부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시장 요청 사항을 감안해 관계부처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핀란드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교통통신부를 방문해 방송통신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IFA 2019에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기업과 화웨이, 소니 등 해외기업 동향을 살펴본 허 위원은 시장이 5세대(5G) 이동통신에 자극을 받는 단계라며 미래를 낙관했다.

허 위원은 "전시회를 둘러보니 5G가 콘셉트는 있으나 아직 시장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IFA가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시회인 만큼 5G가 시장에 자극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통신사와 제조사 등이 8K TV, 5G 기술, 폴더블 스마트폰 등 기술진보를 이루고 있다"면서 "5G가 성숙할 수 있도록 시장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자"고 말했다.

베를린(독일)=



산업 > IT·과학

[IFA2019]허욱 방통위원 'KT파트너스관' 방문...중소기업 유럽진출 격려

"유럽시장 초기 파트너 연결 '상생 발전' 의미 있어" "정부 지원할 부분 관계부처에 신속하게 요청할 것"

(베를린(독일)=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09-07 12:08 송고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2019'에 마련된 'KT파트너스관'을 찾아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KT 협력사 '인바디' 관계자로부터 업체 현황을 듣고 있다.©뉴스1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국제가전전시회(IFA) 2019'에 마련된 'KT파트너스관'에 방문해 유럽 진출을 추진 중인 5개 KT 협력사의 전시를 살펴봤다.

KT는 이번 IFA2019에서 협력사의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T파트너스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해 4개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25개 협력사 참가를 지원해 총 70억원 규모에 이르는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는 △체성분 검사 장비 제조업체 '인바디' △IPTV용 셋톱박스 업체 '이노피아테크' △광커넥터·분배기 업체 '고려오트론' △스마트 가로등 업체 '가보테크' △초소형 직류 무정전 전원장치 업체 '성창주식회사' 총 5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의 유럽 진출 현황을 청취한 허 상임위원은 "유럽시장에서 초기에 사업 파트너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KT가 그런 연결 부분을 염두해 둔 건 의미가 있다"며 "이런 역할이 늘어 앞으로 참여 기업이 10개, 20개로 늘어나면 상생발전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상임위원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소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로) 산업이 확장되고 전후방 연관산업이 성장하는 등 관련 생태계와 협업 관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요구나 유럽시장의 요청 등에 있어 시의성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에 신속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기업과 소니, 파나소닉 등 해외 업체의 전시를 둘러본 허 상임위원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임팩트 있게 기술을 보여주고 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다"고 평하며 "8K 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 등 최신 기술이 얼마나 진전되고 시장 반응이 어떤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